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7월 26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사 44:1-11

제목 : 선민의 신앙 · 늘 푸른 인생(4):

우상을 멀리하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 :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 44:8)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 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영상)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일까요? 이 씨앗을 땅에 심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라홍련>이라 불리우는 <연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을 피운 씨앗이 거의 700년 전의 씨앗입니다. 문화재를 발굴하던 자들이 땅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최근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뉴스 시청)

700여 년 전의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겉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품고 있으니 흠속 심겨져서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다 중요한 것은 속의 내용입니다. 겉모습에 속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7월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받은 선민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사야는 풀들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버드나무 사진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푸른 인생이 되셔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 선민의 신앙. 늘 푸른 인생이란 7월 목회 주제로 말씀을 등도 있습니다. 첫 주에는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실히 하면서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두려움하지 않는 자세가 선민의 신앙의 자세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솔리 데오그로리아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삶속에 하신 일들을 입술로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7월의 주제 설교 마지막입니다. 선민의 신앙 네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생활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롬 1:20에서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주변의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크게 떠서 한번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피는 꽃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하늘 구름의 모습들을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었습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팬더곰 영상) 태어난 팬더곰의 새끼는 왜 이리 작습니까? 엄마 곰은 그 아기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안 다치 게 무는 게 참신기합니다. 어릴 때 개를 키웠는데 새끼를 무는 엄마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창조주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시내 산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20:1-4입니다.

"1.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한 우상을 금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극도의 이기적인 태도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극도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극도의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서로 다 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19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행동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다보니 그 약점을 코로나 19가 파고 들어 계속 감염자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게 만들어 삶을 패망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들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경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혼인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것들이 실패합니다. 그 결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포로생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족속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을 시키셔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제 2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 2이사야 처음 부분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

의 흐름(패턴)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패턴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 40:10-11입니다. 먼저 회복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잣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입니다. 18-19입니다. "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리고 25입니다. "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크게뜨고 귀를 활짝 열고 자연을 살피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을 살피면서 나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야곱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40: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걸 아니

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버드나무처럼 솟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31입니다. "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눈에서 하나님만 앙망하면 그렇게 하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44:1-4입니다. 먼저 회복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1.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9입니다. "6.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선민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버드나무처럼 회복이 됩니다.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주변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개인의 삶으로 말하자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란 무엇 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조물주(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입니다. 일월성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나무 등등입니다. 영원성이 없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영원성이 없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종이입니다. 그 자체를 영원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 사용하면 그냥 다른 책처럼 여기시면 됩니다. 어릴 때 야 성경책이다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는 다 하면서 땅에가 묻어야 된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 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탁월한 목회자이며 설교자인 팀 켈러는 그의 설교 집 <Counterfiet God(모조품 하나님)>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 <저 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 질 거야, 더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할 수 있을 거야, 노후가 안정될 거야 등등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모조품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모조품은 인간이 만듭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우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 가정, 돈, 권력, 성취(성공)를 위한 인맥, 건강한 몸매 매력적인 외모> 등을 말했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우상으로는 <강한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지적 우상으로는 이데올로기 (~ism: 어떤 사상이나 생각만을 최고라고 주장하며 숭배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영혼의 구원의 은총을 못줍니다. 그런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더 취하고 더 소유해야 하고 점점 더 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판단력을 망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떨쳐버

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되는 은총을 입혀줍니다.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에 폭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선민의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대신 제물로 쓰일 솟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니 어디서 왔는지 솟양이 아브라함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선민의 신앙을 보이니 준비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를 입혀주었습니다. 점점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농사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조상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 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사회를 국가를 풀 가운데 솟아나는 버드나무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상숭배는 모습은 없는지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일은 없는지요? 점을 보러 다니는 일, 날 자를 잡으러 다니는 일, 이상한 물건들을 섬기는 일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 삶속에 하나님 보다 더 소중한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없는 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 입니까? 돈입니까? 육체적인 힘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일입니까? 나의 생각만이 최고라는 주장에 빠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버드나무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